

여성의 정치 참여와 언론

- 6. 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전국 17개 일간지 분석 -



김 경 애 (여성학, 박사)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41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단
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Korean League of Women Voters

0.082
16여서

.00004419

00

여성의 정치 참여와 언론

— 5. 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전국 17개 일간지 분석 —

김 경 숙 (여성학박사)

1986. 2

* 이 논문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남순 선의장의 격려와 도움으로 쓰여졌음을 밝히며, 깊은
고맙게 생각한다. 아울러 자료 수집과 검토를 맡아서 해 준 임의정간사를 비롯한 여성유권자연
맹의 실무자들에게도 감사드리다. 이 모든 것들의 성원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 논문을
쓰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경 숙 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그리움속에 숨겨진 세상 2510

목 차

여성의 정치 참여와 언론

- 6. 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전국 17개 일간지 분석 -

1. 연구목적과 범위	1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사	21
3.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사에 비친	31
4. 여성 지방정치 참여 기사 내용	35
5) 후보자	35
가. 여성후보에 대한 지방정치	35
나. 후보자의 특성	38
다. 경력	39
라. 학력	40
마. 경력의향도와 종업원후보	41
6) 의원선거	41
7) 후보자의 배우자	42
가. 여성배우자	42
나. 여성배우자가 말하는 남성	43
다. 선거운동	44
라. 당선배우자	44
4) 비례대표제	45
5) 공천제	46
6) 공천제	47

1996. 2

* 이 논문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낙균 전회장의 격려와 도움으로 쓰여졌음을 밝히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자료 수집과 정리를 맡아서 해 준 심미정간사를 비롯한 여성유권자연맹의 실무자들에게도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모든 분들의 성원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쓰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목 차

I. 서론	7
II. 선행연구	8
III. 연구문제와 방법	9
IV.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사.....	11
1.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사의 비중	11
2. 여성 지방정치 참여 기사 내용	13
1) 후보자.....	13
가. 여성후보에 대한 지면할애	15
나. 후보자의 특성	18
다. 공약	19
라. 당선자	20
마. 전제회후보와 황산성후보	20
2) 여성단체 활동	24
3) 후보자의 배우자.....	27
가. 여성 배우자상	28
나. 여성배우자가 말하는 남성후보	29
다. 선거운동	30
라. 남성배우자	31
4) 비례대표제	32
5) 유권자.....	34
6) 운동원	35
3. 월별 여성관계 보도 경향	36
4. 지면별 기사	38
5. 기자성별 기사	40
6. 기사종류별 기사	44
V. 결론 및 제언.....	45

표 목 차

표 1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기사와 전체 지방선거 기사와 전체 여성기사 비율	12
표 2	신문별 여성 지방정치 관련 기사	14
표 3	여성후보에 관한 기사	17
표 4	전제회, 황산성후보에 관한 보도 기사수	22
표 5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기사	24
표 6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련된 기사	27
표 7	비례대표제에 관한 기사	32
표 8	여성유권자에 관한 기사	34
표 9	월별 신문별 기사	36
표 10	월별 기사내용별 분포	37
표 11	지면별 여성지방정치 참여 관련기사 비율	39
표 12	여성과 남성 언론 종사자	41
표 13	기자성별 기사 비율	42
표 14	기사종류별 분류	44

I. 서론

매스미디어의 효과와 기능에 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요 분야로 탄환이론, 선별 효과이론, 2단계 유동이론, 이용과 충족이론, 의제설정이론, 문화계발이론, 침묵의 와선효과이론 등으로 매스컴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든가, 부분적이라든가, 또는 영향이 크지않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창현, 1990:230-247). 이러한 매체의 효과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에는 상반된 것들이 많고 뚜렷한 결론이 없지만 현대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매스컴의 힘과 영향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한다 하겠다.

특히 정치에 있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서구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나 선거운동에서 뉴스매체는 막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Graber, 1984:170). 대중매체는 거대한 수용자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정규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달하는데 수용자들은 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의해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Graber, 1984:27). 특히 뉴스매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Kahn and Goldberg, 1991a:181). 또한 이 뉴스 미디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세계를 볼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데, 뉴스미디어는 특정 쟁점 만을 다루고 다른 쟁점은 무시하므로써 공공 의제를 규정하고 사람들이 정치적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Kahn and Goldberg, 1991b:106). 이러한 서구에서 이루어진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한 선행 연구들은 매스 미디어가 개개인들의 정치적 인지의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매스 미디어는 정치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의 습득은 물론 체계적인 지식, 사고, 추리, 이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Johnston, A, 1990 최선열, 1994:64에서 재인용).

1995년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의 증대는 여성계의 최대의 과제로 논의되었는데, 여성단체와 여성후보자들은 대중 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대중 매체의 주목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하겠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후보자로 입후보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각 정당은 여성들의 표를 겨냥하여 비례대표제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56개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조직한 <여성 할당제를 위한 연대>를 통하여 여성공천할당제를 추진하였으며, 각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에 대한 일반여성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과 여성 정치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정책 과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후보들을 발굴, 추천함에 있어, 후보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였고, 후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과 정치참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성명서 발표(김경애, 1995) 등을 통하여 대중 매체를 활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대중 매체 활용을 위한 활동을 실지로 대중 매체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대중 매체가 갖는 영향력으로 인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1995년 10월에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정책 10대 과제에 매스 미디어에서의 성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의 선정은 여성 차별 해소에 있어 대중 매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95년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해 대중매체 중의 하나인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15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를 이루기 위하여 매스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선행연구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매스컴 보도에 관한 서구의 선행 연구들은 대중 매체에 나타난 여성 정치와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매스 미디어는 보수적인 사회 체제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비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정치 입문은 상당한 사회, 정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기존의 뉴스 관행상 여성 정치에리트에 대한 미디어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아닐 것임에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렬, 1994:65).

여성의 정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미국에서도 언론이 여성후보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보도를 했으며 그러한 보도 관행이 투표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ahn 과 Goldberg는 양적 차원에 있어서 여성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남성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되어 작게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대결의 상황이 치열하건 치열하지 않건 남성후보가 여성후보 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보도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여성후보자들에게 불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 차원에서는, 보도는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여성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여성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선거의 쟁점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성의 정형화는 뚜렷하여 남성 쟁점은 외교, 안보, 경제, 농업문제등이 있고, 여성 쟁점은 소수민족 권리, 환경, 임신중절,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마약, 사회 프로그램의 등 여성들이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간주된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b:108-113).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매스 미디어의 여성에 관한 보도 분석은 전체 여성관계 기사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여성들이 매스 미디어에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남명자, 1984; 오택섭, 1984; 송유재, 1984:1988:1990; 문영숙, 1983; 최상진, 1995; 조형 외, 1991; 김미숙, 1994; 이경자, 1986; 최상진, 1995; 김미숙, 1995; 김유정, 198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 정세화 외, 1989). 다시말해 대중 매체에 있어 여성 관련기사나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연구는 매스컴에 나타난 여성의 총체적 이미지와 보도 기사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떻게 매스컴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하는지에 관한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하겠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4)이 여성에 관련된 정치, 사회기사가 중앙의 5대 일간지에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연맹이 1993년 7월 한달간 5개 일간지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전체 여성관련기사 중에서 여성 정치참여와 정치가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1993:6)으로 양적 분석 결과만 보고하고 있을 뿐으로, 정치 관련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다.

III. 연구 문제와 방법

이 연구는 1995년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대중 매체 중 전국의 신문이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정치의 분야에 참여하려는 움직임과 시도를 대중 매체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연구하고자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의 이용 전략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는 첫째, 전국의 신문이 여성정치 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로 어떤 태도로 보도했나? 특히 여성후보와 여성배우자들, 여성단체 활동,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나? 둘째, 이러한 보도에 있어 전국지와 지방지와는 무엇이인가? 셋째, 월별 기사 보도 성향은 어떠한었으며, 넷째, 어떤 면에 실렸으며 다섯째, 여성기자와 남성기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여섯째, 기사의 형태는 어떠한었나? 등의 문제를 규명해 나간다.

이 연구는 서울에서는 동아, 조선, 한국, 중앙, 한겨레등의 5개 신문과 지방지로는 각 광역시와 각 도지역 마다 대표적인 일간지 1가지를 정하였다. 인천광역시에 경인일보, 경기지역에 경기일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지역에는 대전일보, 충남지역에는 충청일보, 전북지역에는 전북일보,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는 광주일보와 무등일보,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에 대구일보와 매일신문, 부산직할시에 국제신문, 경남지역의 경남일보등이다. 그리하여 중앙지 5개

지와 지방지 12개등 전국 17개 신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기사의 분류는 국회 도서관에 보관 중인 판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신문의 기능으로는 보도기능, 지도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 등으로 대체로 나눌수 있는데, 신문은 뉴스 보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기능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 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특정의 태도나 행동을 취하도록 하며 특히 권력을 창출하는 정치적 기능 등의 수행에 주력하여 (이범수, 1993:60-61) 정통적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기(최선열, 1989:104) 때문이다. 또한 신문은 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꼽혔으며(한국언론연구원, 1990:21:88) 일상의 정보를 얻거나 사건의 해설을 보거나,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서나, 사회의 소속감을 위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로 꼽히고 있어(한국언론연구원, 1990:59)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신문의 보도와 논평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5년 3월에서 6월 까지로 선정하였다. 3월 부터 각 정당은 공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갔고 여성계로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리는 기념 대회에서 여성후보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는 때로 이 시기부터 시작하여,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이 행해진 6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조사내용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양적분석은 신문 지면을 활판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기사의 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여성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여성, 유권자, 선거운동원, 여성단체 활동, 비례대표제 관련 기사, 정무장관의 전국순회시의 인터뷰기사, 기타 사항등으로 나누어 기사의 수를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후보자에 관한 분석에서는 전제회광명시장 후보와 황산성서울시장 후보를 사례로 비교하였다. 기타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일반론등이 포함되어 있다. 후보자의 명단만 게재된 기사는 제외하였다.

기사 분류에 있어서는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기사의 시각이나 중심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가 발굴한 후보에 관한 기사에서 보도 내용이 여성단체의 활동에 주안점이 두어지면 여성단체 활동으로, 여성단체가 발굴하고 추천하나, 후보의 개개인에 관한 것이 중점적으로 보도되면 후보자로 분류하였다. 기사는 다시 게재된 지면상으로 분류하여 정치,경제, 사회등 일반면과 소위 여성란으로 불리우는 여성, 생활, 가정면에 실린 기사의 분포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기사를 쓴 기자의 성별로도 분류하였다. 기사유형에 있어 보도기사, 기획 특집, 해설, 칼럼, 인터뷰 등으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알아 보았다. 분석은 이러한 양적 측정과 더불어 질적 분석도 시도하여 내용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에 앞서 중앙의 5개 일간지는 천리안 서비스를 통해 전체 지방자치기사수와 전체 여성관련 기사 수에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관련 기사수와 비교하였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여성후보와 상대 후보와 부분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밖에 여성단체 기사와 여성기자가 쓴 기사

의 수와 각 신문의 여성지방정치 참여 기사의 수와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spsspc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가 매스 미디어가 여성 관련기사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체적 경향을 분석하는 것에 머물러 구체적으로 각 주제 영역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으로, 첫째, 여성과 관련한 정치 기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소위 남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온 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둘째, 이 연구는 양적 분석과 더불어 기사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셋째, 이 연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사 분석하므로써 신문 보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므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매스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신문 연구가 중앙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지방지도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섯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중 매체에서의 여성의 성차별을 시정을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의 추진에 앞서 대중 매체 속에서의 여성들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 파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진 분석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사진 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권자들에게도 시각적으로 호소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였으나 사진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양적 분석에서 기사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사의 길이나 신문 지면에서의 비중 등이 간과된 점이 제한점이다. 문단 수의 계산을 고려하였으나 한 문단의 크기와 길이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문단수로 계량화하는 것도 의의가 제한되어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개개 여성 입후보자와 상대 남성입후보자와의 비교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IV.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사

1.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사의 비중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었고 역사 상 가장 많은 여성들이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여성단체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사회 정치 현상으로 간주되므로써 보도 가치를 띠게 되어 매체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면은 그러한 움직임은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에 도전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미약하여 무시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성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한 보도를 중앙의 5개 일간지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기사의 수를 전체 지방선거 관련기사와 여성관련 전체기사와의 비율로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는 전체 지방선거관련 기사에 비해 3.6%로 여성 지방자치 참여 관련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여성관련 기사에서도 전체 여성관련기사에 비해 5.1%로, 정치 참여에 대한 여성계의 관심이 컸음에도 보도 비율은 미미하였다. 5개 일간지 가운데 한계레신문과 중앙일보가 그 기사 편수에서는 가장 많으나 동아일보와 한계레신문이 여성 관련 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성참여에 관한 기사가 6.27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다른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났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1994년 4월에서 6월까지 서울 5개 일간지 기사분석에서 여성기사 중에 정치, 사회 기사가 10.9%를 차지한다고 보고(1994:14-18)한 것과 비교될 수 있으나, 정치, 사회 기사에는 여성의 정치활동, 여성정책, 정치가십, 사회가십, 여성의 사회진출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비교하기 어렵다하겠다. 동 연맹이 1993년 7월 한달간 5개 일간지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전체 여성관련기사 중에서 여성 정치참여와 정치가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1993:6). 그러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정치 관련기사는 대부분이 외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것이고 국내 기사는 여성동장과 당시 황산성 환경장관과 송정숙 보사부장관이 업무 수행면에 관한 기사로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다(1993:12-13). 이에 비한다면 지방 정치관련 여성기사는 전년에 비해 국내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사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언론은 지방자치 선거를 즈음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움직임에 예년에 비해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기사와 전체 지방선거 기사와 전체 여성기사 비율(%)

	여성 지방정치참여	지방선거 (%)	여성 (%)
동 아	31	4.3	6.1
조 선	33	2.8	4.6
중 앙	34	3.6	4.2
한 국	20	3.4	4.3
한 계 레	35	4.1	6.3
평 균	30.6	3.6	5.1

각 일간지 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치 참여 기사 빈도수에서는 대구의 대구일보가 조사 신문 중 가장 자주 실어 43회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뒤를 이어 광주 무등일보가 38회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부 지방지는 서울의 중앙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었다.

중앙지에서는 한계레가 35회로 가장 앞서고 중앙일보가 34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

은 횡수를 실은 신문은 대전일보로 9회에 불과하였고 뒤이어 광주일보가 14회에 그쳤다. 중앙지의 경우 보다 지방지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사 게재수에서 격차가 크고 이는 지방지의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가 신문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중앙지의 경우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는 게재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한국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여성정치 참여기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사기간 4달 동안 평균 3, 4일에서 6일 마다, 지방지의 경우 3일에서 13일 마다 여성의 정치 참여기사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신문에서의 여성지방 정치 참여 기사의 수는 전체 지방정치와 선거에 관한 기사나 여성에 관한 기사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했으나 독자들은 중앙의 경우 일주일 최소한 1회 내지 2회의 여성참여 기사를 접했고 지방의 독자들도 일주일에 2회 내지 2주일 1회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독자들이 신문을 여러부 구독할 경우 그 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를 접할 기회는 늘어난다 하겠다.

2. 여성 지방정치 기사 내용

여성정치 참여 기사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아 38. 2%를 차지하였고 여성 단체에 관한 기사가 뒤를 이었다. 후보 부인에게도 관심이 커 세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새로 신설된 비례대표제에 관한 기사가 13. 4%였다. 그 외에 유권자, 운동원의 순서로 보도되었다. 선거 보도인 만큼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지방자치 선거와 연관하여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보도가 그 뒤를 이은 것은 여성단체가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해서 많은 제한을 두는 반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활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설되어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은 사진으로 그 모습과 후보에 대한 반응과 활동이 보도되어 이 논문에서는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겠다.

1) 후보자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기사 중에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표2). 여성이 선거에 후보자로서 출마한 것은, 기존의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여성을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로 사적인 영역에 머무른다고 전제하고 가정과 생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취급하고 여성이 수동적이며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여성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그저 먹고, 쓰고, 입고, 얼굴에 바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간부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여성신문, 1995, 4, 7) 이러한 기존의 메스컴에서, 그들이 다루어온 여성상과 전혀 다른 소위 남성들의 세계인 정치에 발을 내딛고, 권력과 성취를 지향하는 여성후보들

표 2 신문별 여성 지방정치 관련 기사(%)

	후보	여성단체	후보배우자	비례대표	유권자	운동원	정무장관	기타	총계
동 아	12	6	7	3	0	3	0	0	31
조 선	14	3	3	4	8	0	1	0	33
중 앙	12	3	9	2	7	1	0	0	34
한 국	11	2	1	2	2	1	0	1	20
한계례	15	15	1	3	0	0	0	1	35
소 계	64	29	21	14	17	5	1	2	153
평 균	12.8 (41.8)	5.8 (19.0)	4.2 (13.7)	2.8 (9.2)	3.4 (11.1)	1.0 (3.3)	0.2 (0.7)	0.4 (1.3)	30.6 (100.0)
강 원	9	4	4	10	1	0	1	0	29
경 기	11	3	1	2	1	0	0	0	18
경 인	14	1	0	4	0	0	0	0	19
충 청	13	1	2	4	0	0	1	0	21
대 전	4	0	1	1	2	0	0	1	9
매 일	10	8	3	3	3	0	1	0	28
대 구	7	11	13	6	6	0	0	0	43
전 북	11	5	4	3	0	0	0	0	23
광 주	1	6	5	1	1	0	0	0	14
무 등	9	14	6	3	5	1	0	0	38
국 제	1	8	0	6	2	0	1	0	18
경 남	14	3	2	2	5	0	0	1	27
소 계	104	64	41	45	26	1	4	2	268
평 균	8.7 (38.8)	5.3 (23.9)	3.4 (15.3)	3.8 (16.8)	2.2 (9.7)	0.1 (0.4)	0.3 (1.5)	0.2 (0.7)	22.3 (100.0)
총 계	168	93	62	59	43	6	5	4	440
평 균	9.9	5.5	3.6	3.5	2.5	0.4	0.3	0.2	25.9
비 율	(38.2)	(21.1)	(14.1)	(13.4)	(9.8)	(1.4)	(1.1)	(0.9)	(100.0)

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관심을 끈다. 여성후보에 관해서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에 도전하는 새로운 여성으로 대중 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고 또하나의 최선열이 주장하듯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대중 매체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게 보도했을 것이라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후보는 그 숫적으로 희소하여 뉴스가

치가 있다고 여겨져 신문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 후보 보다 중요하지 않고 주목할 만하지않아 여성후보는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hn and Goldenberg, 1991a:185).

가. 여성후보에 대한 지면 할애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의 중앙지는 대체로 11회에서 15에 걸쳐 비슷한 횟수로 여성후보들을 다룬 반면, 지방지는 신문에 따라 그 격차가 커, 경인일보, 경남일보가 14회에 걸쳐 보도하였고, 광주, 국제신문은 불과 1회에 걸쳐 보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은 대체로 특별한 관심을 끄는 후보로 간주되어 각 신문 마다 여성후보를 따로 소개하는 지면을 할애하여 여성후보들은 신문 매체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유리하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여성후보는 전체 후보들을 소개하는 지면에 남성 후보들과 함께 등장하였고, 또한 지역의 여성후보 만을 소개하는데 다시 등장함으로써 남성후보들 보다 더 자주 신문에 등장하였다. 신문은 인지도를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 (Patterson, 1980:111)이며 후보에 대한 지면 할애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투표 행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의 여성 후보자에 대한 활발한 보도는 여성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여성후보에 대한 기사는 공천된 후보, 입후보한 여성 후보를 보도한 기사, 여성 출마 추세와 예상 후보 비율, 그리고 당선자에 대한 기사, 여성들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사 등이 있다. 여성 개개인 후보들은 상대 남성 후보와 함께 보도되거나 여성 후보 단독으로 보도되거나 이색 후보로 특별히 취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중앙지의 경우 여성후보 단독기사나 남성 후보와의 기사가 황산성, 김옥선 서울시장 출마자와 전제회 광명시장 후보에 관한 것이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후보에 관한 기사의 반인 32개 기사가 황산성과 전제회 후보에 관한 것이었다 (황산성 전제회 후보에 관한 기사 분석은 pp. 20-24). 그 외에는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출마자가 주로 소개되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여성후보 여기 있소'(3/9)라는 표제의 기사로 여성단체연합이 추천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여 구의원 출마자는 명단 조차 별도 기사로서는 취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 99명 구청장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도 지방선거 현장이라는 부표제로 '구청장 여성후보 "살림은 여자라야"'라고 붙여진 기사에서 3문단 짜리 기사로 1회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 밖에 이색적인 여성후보로 70대 여성후보, 탈렌트 출신 여성후보,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권 출신의 여성후보들을 소개하였다.

여성단체 추천 등으로 출마하는 여성들의 명단을 실을 경우에도 여성 후보들이 공천에서 불리하여 공천 가능성이 낮고, 여성 후보의 숫적 열세를 지적하여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불리하며 여성후보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제는 '4대 지방선거 여성후보 1.6% 불과'(한겨레 6/15), '말 뿐인 여성후보 공천'(중앙 6/10), '지자 선거 여성도 공천을'(동아 4/18) 기사 등이다. 또한 전국에서 여성의 입후보를 알리는 기사에서 '깨끗한 이미지등 강점'(조선 4/28)이라는 부표제로 달아 여성 후보는 숫적으로 적으나 좋은 후보라고 소개하여 여성후보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의 경우 독자의 눈이라는 고정란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밀어주자'는 남성독자 투고를 '쓰레기 재활용등 생활자치 큰 몫 기대'라는 부제로 실고 있어 여성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다. 중앙지에 남성후보와 더불어 여성후보가 다루어질 경우, 특정당의 공천 후보나 서울시 선거출마자, 또는 전체 단체장 후보, 전국 등록 후보를 분석하면서 여성후보의 비율이나 시의원등의 이름을 소개했다. 이러한 기사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소하다는 것을 부표제로 강조하여 여성후보의 입후보에 호의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지역의 개개 여성후보들은 중앙지이기도하고 서울지역 신문이기도한 5개 일간지에서 황산성, 김옥선, 전재희등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와 이색적인 후보나 여성단체 추천 후보 외의 서울지역 여성 후보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앙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성격상 중앙 정치에 관한 보도기사와 서울시장 선거에 보도를 집중하여 지면 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서울지역은 여성후보들이 가장 많이 출마한 지역이어서 여성 후보인 것이 특별한 뉴스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 여성후보는 2백52명이었는데 이중 1백5명이 서울지역에 출마하였는데 그 중 서울시장에 2명, 구청장에 1명, 시의원 12명, 구의원 90명으로 숫적으로 적지않아 희소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뉴스매체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서울의 일부 여성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기도 한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보도가 집중된 중앙지에서, 희소성으로 관심을 끌기 보다는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뉴스 매체로 부터 판정을 받아 뉴스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어 관심을 끌지 못해 남성 상대 후보에 비해 매체에서 적게 다루진 경우이다 (상세한 논의는 p. 17-20). 그러나 서울시의 기초단체장,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에 입후보한 남성들도 거의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해 서울시의 시장후보를 제외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 보다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후보에 관한 기사 가운데 서울지역 후보와 지방의 후보에 관한 신문 보도에서 외형적인 수치 상으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중앙지가 여성후보에 대한 단독 기사와 여성후보를 이색 후보로 보도한 기사가 지방지 보다 많았으나 이러한 보도가 단체장 후보와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에 관심이 편중되어 다른 여성후보들은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여성 후보는 대부분이 의회의원직에 출마하였으나, 희소성 때문에 지방지에서는 뉴스가치를 인정받아 지면상으로 잇점이 되었다 하겠다. 다시 말해 그 지방에서 출마하는 개개 여성후보들에게 지방지는 골고루 특별 지면을 할애하여 관심을 나타내었다. 여성후보들은 상대

남성후보들과 함께 지방지에 후보로서 똑같은 비중을 두어 소개하는 기사에 실렸을 뿐 아니라 의회의원직에 출마한 여성후보들도 소수의 후보로써 뉴스매체에 관심을 끌어 상대 남성후보들과 함께 소개된 기사수의 반수이상이 여성후보 만을 모아서 개개인을 소개하는 기사로 다루어졌다(표3). 지방지는 여성후보에 대해 중앙지 보다 끌고루 지면을 할애하였고 자세한 소개를 하였다.

남녀 후보를 함께 다루는 기사에서는 특이한 후보, 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색적인 선거전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여성 후보들은 계속 주목을 받아 남성 상대 후보들에 비해 유리하였으며 서울에서 출마한 여성들에 비해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인지도를 높이는데 유리하였다 하겠다. 또한 이색 후보나 선거전에 관한 보도도 표제로 여성에 관한 것을 뽑아 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후보자 나서자 남성출마 꺼려'(매일 6/6), '수성구 여성4명 출사표 "눈길"'(매일 6/10), '단체장에 여성 "유일" 도전'(경남 6/13), '여성 김선규씨 홍일점'(경기 5/27), '여성후보 "가정살림꾼" 한표 호소'(대전일보 6/19)등의 표제를 달아 남녀 후보가 함께 다루어져도 여성에 관한 기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장 후보인 전재희와 김태수의 대결과 김천 모암선거구의 김용규와 임봉선의 대결(대구 6/20)을 성대결로 묘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방지도 후보자에 관한 통계적 분석에서 여성후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 여성들에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기사는 특정 후보의 이름은 나열하지 않았으나 여성후보에 대체로 호의를 갖도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겠다. 그 밖의 기사로 여성후보를 많이 내어야한다는 주장을 한 칼럼(2회)과 좌담회(1회), 그리고 시민의식 조사결과 여성후보자의 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1회) 등으로 여성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하였다. 여성후보 개개인을 소개하는 기사는 당선 가능성

표 3 여성후보에 관한 기사(%)

	중 앙 지	지 방 지
여성후보자 출마, 공천, 소개	48(75.0)	75(72.2)
상대 남성 후보자와 함께	14(21.9)	35(33.7)
여성후보자들만	23(35.9)	20(19.2)
특이한 후보	11(17.2)	20(19.2)
여성 후보자 출마 추세와 통계	6(9.4)	7(6.7)
당선자	7(10.9)	13(12.5)
여성후보자의 진출 요청된다는 주장	2(3.1)	4(3.8)
기타	1(1.6)	5(4.8)
계	64(100.0)	104(100.0)

에 대해서는 대부분 뚜렷한 판단을 내리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문이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그 후보에 대해 신문이 호의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여성후보에게 유리하였다 하겠다.

나. 후보자의 특성

여성후보의 소개에서 후보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나 어떠한 후보인가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신문은 후보 특성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는데, 여성후보자에 관한 특성은 첫째, 여성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면서 밝힌 특성이 있고, 둘째, 후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강조하는 면, 셋째, 신문기자가 다른 사람들의 평을 듣고 쓴 것과 넷째, 기자 자신이 판단하여 쓴 것이 있다.

여성후보자에 관한 특성은 여연이 여성후보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남녀평등의식이 투철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운동을 통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사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 조직적 통솔력을 갖춘 사람,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품성을 가진 사람, 지역 생활과제 해결에 전문성을 쌓은 사람 등 8개항을 제시하면서 여연이 추천하는 후보는 바람직한 후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에 관한 기사에서 대구일보(3/8)는 앞의 3가지항만 명기하면서 이러한 기준으로 여연이 후보를 선정하였다는 기사를 실어 지방지에 나타난 여연 후보의 특징은 봉사활동과 약자에 대한 권익 활동을 중요시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된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여성이 잘하던 일을 의회 진출을 통해 계속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그 반면 한계례(3/9)신문은 전 기준을 다 실어 여연이 추천하는 후보는 봉사자로서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의식이 뚜렷한 전문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후보자 자신이 자신의 특성이라고 강조한 것은 며느리, 살림꾼의 전통적 여성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다. 후보자 자신이 자신의 특성을 강조한 것을 신문이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는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노력해 온 활동파'(경남 5/16), '청소년회관 상담원'(대전 6/17), '여성단체에서 활동력 길러'(매일 6/15), '알뜰하고 성실한 가정살림꾼이 지역살림꾼'(대전 6/18), '똑똑한 여성,' '전문 정치인,' '맹렬여성,' '희생, 봉사의 주역'(강원 6/20), '인간 들국화'(경남 6/24), '살림꾼,' '맡겨보자 큰며느리'(경남 6/24), '남자들을 더 잘 휘어잡는 스타일'(동아 6/18) 등으로 희생 봉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더불어 매우 적극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후보에 대한 주위의 평을 신문기사에 옮겨 실는 형식을 취한 후보의 특성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교육운동가,' '부드러운 인상과 뛰어난 친화력,' '날카로운 시정 질의,' '주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의원,' '솔직하고 성실하다는 평'(전북 6/20) 등 소위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

되는 부드러움을 강조하여 여성다운 여성이며 동시에 '강한', '뛰어난' 긍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능력에서도 탁월하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다.

기자가 여성후보의 특성을 묘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는 '장군의 손녀'(경남 6/12), '고희의 할머니 후보'(경남 6/12) 등이 있고, 주관적인 묘사에서는 '여성 특유의 순발력과 참신한 기획력, 섬세함으로 선전' (경인 6/20), '출마 후보자 모두가 40대의 참신한 인물로 그동안 여성,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면서 신뢰감을 바탕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먼 파워라는 게 공통적인 특성이다' (경남 3/8), '발이 부르토도록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이들 여성 후보들에게서 연약함이나 자신없음은 찾아볼 수 없다'(전북 6/20), '여성후보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명예와 지위를 위해 나오는데 반해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탁아, 복지 여가 시설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모든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북 6/20) 등으로 여성후보에 대해 능력있고 자신 만만한 여성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Kernam은 '언론은 남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보도한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보도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과 경력보다는 가족적 배경, 외모, 결혼관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1994:28)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여성후보에 대한 묘사에서도 여성다움을 강조하므로써 남성 후보와는 전혀 다른 후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후보들은 여성들은 의존적, 수동적, 비경쟁적, 감정적등으로 묘사 (최선헌 1994:66)되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남성다움의 특징인 독립적, 경쟁적, 지도력 등을 중심으로 보도하였고 또한 여성다움도 호의적으로 부각되어 여성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약

6. 27 지방자치 선거에서 뚜렷이 드러난 쟁점 없이 여성후보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신문들은 이러한 여성후보의 공약을 보도하고 있다. 여성후보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 환경, 아동, 노인, 청소년 복지, 학교급식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고, 이러한 공약은 여성후보들이 전통적인 역할의 연장으로 의회에 진출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유권자들에게 '여자가 무엇하러'라는 적대감을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고 신문은 이러한 공약을 보도하여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 보도한 여성후보의 공약은 '생활환경개선, 자녀교육비등 가정주부다운 공약등을 제시'(충청 6/22), '여성특유 시정 장점'(경인 3/24),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대전 6/17), '국민의 권리보호 여성의 권익 신장'(경남 6/13), '환경 구의원'(매일 6/15), '모성본능의 전략,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이웃'(강원 6/20), '탁아사업 확대 실시, 국민학교의 급식 전면 실시'(경남 6/27),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에게'(무등 6/9), '여성복지, 권익향상 자녀양육 정책적 지원'(무등 6/30), '서민 세금 감시', '비리 사안의 도의회 청문회 실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욕구 해소', '여성 취업 정보의

상설 공개,'버스 노선 증차,'공원 조성,'국민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폐지,'시의회에 여성권익 복지위원회 구성,'국민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노인복지,'여성의 사회 참여,'탁아,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전북 6/20)등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전통적인 여성 영역에 관한 공약이라하겠다. 이러한 공약은 여성이 의회진출을 통해 생활에 직결된 문제와 여성들이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나타내어 여성 후보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통적인 여성역할과 관련된 공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 여성을 소위 여성의 영역인 특정 부문으로만 국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친 강조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겠다.

라. 당선자

당선자 보도에서 전제회 광명시장은 여성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단체장으로 각광받았으며 여성당선자들은 이색 당선자로 보도되었다. 과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함께 당선된 세여성의원(중앙 6/28), 김을동씨등이 중앙지에서 취임되었고(동아, 한겨레 6/29) 각 지방지도 지역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에 대해 보도하였다(충청, 전북 6/28, 매일 6/20, 충청 6/29, 강원 6/28, 경남 6/28). 한겨레와 매일신문은 각각 여성 진출에 대한 해설 기사를 실기도 하였다(6/29).

마. 전제회 후보와 황산성후보

여성후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후보는 전제회광명시장 후보와 황산성 서울시장 후보였다. 이들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로서 각각 입후보했는데, 두 후보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상반되고 선거 결과도 당선과 낙선으로 엇갈렸다.

이 두 후보에 대한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례로서 비교하고자 한다.

전제회후보는 여성후보 중에 가장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전제회후보는 조사기간 중에 30여회에 걸쳐 중앙지와 선거 지역인 경기지방 그리고 기타지역에서 신문 보도되었다. 전제회는 민자당이 첫번째로 공천한 단체장으로 신문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여 경기지방에 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지에도 주요 뉴스가 되었다. 동아, 조선, 중앙이 전제회를 인터뷰한 박스 기사를 정치 사회면에 실고 있어 전제회후보는 공천에서 부터 중앙지와 지방지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기사에서 '여성시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광명시장이라고 불러달라고 주문하고 여성이라서 달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당차게 말했다'(조선 3/24)는 기사에서 보듯이 만만치않은 여성후보라는 이미지를 처음 부터 부각하고 있다. 주요 경쟁상대였던 김태수후보의 공천은 전제회후보의 공천에 비하면 매스컴의 관심이 낮았고 전제회후보의 상대로서 관심을 받았을 뿐이었다(한국 3/25).

선거의 대결의 윤각이 드러난 후에는 선거전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전채회후보와 김태수후보의 대결로 압축되고 이 두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성의 대결'이라고 이름 지워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인기방송극 모래시계의 두주인공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모래시계의 대결'이라고 명명되기도하였다. 전채회후보는 경력이나 시장 재직 중의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전직 시장인 김태수와의 대등한 각축전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성대결로 끌고가 남녀 간의 능력 차이로 선거전의 쟁점이 비화되어 여성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남자보다 못하다는 논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채회씨는 '남자보다 훌륭한 업적을 쌓은 여자는 얼마든지 많다(경기 6/20)'는 주장을 폈다. 또한 '자신은 광명시장으로 출마했을 뿐 여성시장으로 의식한 적이 없고'(경기 6/30)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장 재직 기간 중 열심히 시정을 편 능력이 인정돼 공천 받은 것'(한계례 6/6)이라며 여성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진부한 선입견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하였다. 신문들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남자를 능가하는 업무 추진력으로 1년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인데도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조선 5/23)고 썼다. 또한 '꼼꼼한 40대 전채회나, 호방한 60대 김태수나 전씨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꼼꼼한 성격의 살림꾼으로'(동아 5/17), '열린 시정 투명한 행정'(동아 5/17)을 기치로 내건 것을 소개하고 있다. 전채회후보에 대해서 신문기사는 꼼꼼하고 섬세한 살림꾼이라는 것을 내세워 '여성다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줄였고 한편에서는 보통 여자들과는 달리 뛰어난 여성이라는 것으로 동시에 묘사하여 전체적으로 유능하고 믿을 만한 후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틀림없는 낙선거, 둘째, 다소 당선 가능성 있다, 셋째, 당선가능성 있다, 넷째, 당선할 것 같다고 보는 기사이다. 전채회후보의 신문들이 관심있게 보도한 것은 셋째나 넷째에 해당하여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선 후에도 전채회시장은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에 당선하여 전국적인 뉴스대상이 되었다. 경기도 지방의 경인일보와 경기일보가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은 물론, 서울의 각 중앙지가 보도했을 뿐 아니라 동아, 조선이 사회면에 사진과 더불어 각각 5단과 4단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동아는 특히 '여성시장 만세'라는 표제로 전채회시장의 당선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한계례는 '눈길끄는 기초단체장 당선자 3명 중의 1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일보, 대구의 매일신문, 강원신문등 지방신문도 인터뷰 기사를 실고 있어 유일한 여성단체장으로 뉴스가치를 평가 받았다. 조선일보 (6/29)는 '나는 광명시민의 맘머느리'라는 표제하에 매일 새벽 6시에 출근, 거리청소에 나서는 빗자루 시장으로 부지런한 시장으로 선거운동도 부지런하게 하여 승리하였다고 쓰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치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묘사하였다. 한계례신문(6/29)은 전채회씨가 '다소 나약하다는 이미지를 씻는데 성공하여' 당선된 것으로 해설하여 신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판적으로 묘사하였으나 그

당선을 특기하고 있다. 경남일보(6/29) 매일신문 (6/29)는 대치수상과 비유된다고 보도하였고, 강원일보 (6/30) 인터뷰기사는 ‘강릉에 시택있어 나도 강원도 사람’이라는 표제를 달아 각 지방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을 지어가면서 유일한 민선 여성기초단체장에 호의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제회씨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어긋나지 않고 거기에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장점이 가미된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전제회, 황산성후보에 관한 보도 기사수(%)

	전 제 회		황 산 성	
	중 앙	지 방	중 앙	지 방
민자공천 / 출마	7	4	5	1
경 선	6	5	6	0
당 선	3	5	0	0
기 타	2	0	4	0
합 계	18	14	14	1
총 계	31		15	

전제회의 경우 비해, 서울시장 여성후보였던 황산성은 전혀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황산성후보는 뛰어난 학력과 화려한 경력으로 상대 남성 후보에 비해 인물로서는 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에서 부터 정원식민자당후보, 조순민주당후보, 박찬종무소속후보의 출마선언 기사보다 현저하게 비중이 낮게 다루어졌다. 소위 빅 쓰리 후보들은 출마 선언은 정치면 전면을 활애받아 중앙지에만도 후보 경선을 전후로 정원식후보가 1면 중간틈의 기사를 포함하여 13차례, 조순후보도 1면 중간틈으로 다루어진 기사를 포함하여 17차례에 걸쳐 보도되었다. 무소속의 박찬종후보는 경선이 없어 뉴스 거리가 적었으나 출마에 관한 해설 기사를 포함하여 10차례나 보도되었다. 이에 비해 황산성후보는 각 중앙지에 1단 내지 3단의 단신으로 취급되었으며 한계례의 경우 1문단의 기사로 적은 뉴스 비중으로 각 신문에 1회씩 취급되어 상대 후보인 빅쓰리 뿐 아니라 전제회후보에 비해서도 그 비중은 현저하게 낮았다.

선거전에 돌입하자마자, 뉴스 매체로 부터 빅쓰리에 반한 리틀쓰리, 스몰쓰리 또는 2진 그룹,군소후보로 분류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로 낙인 찍혔다. 전제회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데 비해, 황산성후보는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도되었다. 선거전이 시작되자 신문은 소위 빅쓰리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황산성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에게 지면에 할애할 때도 스몰쓰리, 또는 스몰식스들의 말을 들어보자는 식의 보도로, 당선 가능성에서는 아예 배제되었다. 중앙일보는 스몰3는 빅3에 비해 조직, 자금면에서 열세다. 더구나 빅3의 그늘에 가려 여론의 관심권 밖에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않고있다는 전제 하에서 황산성후보에 대해서는 스몰3 중 대중의 인지도나 열의에

서 단연 앞서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선 가능성은 배제되고 있다. 한국일보도 '리틀6 말도 들어주세요'라는 표제로 정원식, 조순, 박찬중후보 외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에서 김옥선후보와 함께 황산성후보의 선거운동을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도 '리틀쓰리 후보 꼭 승리 출사표'라는 표제로 4단 기사(6/17)를 실었고, 동아일보(6/17)도 '우리도 자신있다'고 빅스리에 가려 정치권의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리틀 스리 또는 나머지 6명의 후보가 있다고 소개하고 여기에 김옥선후보와 더불어 황산성후보를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제목은 리틀쓰리 또는 군소 후보여서 당선이 무망한데도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꼭 승리하겠다고 운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뉴앙스를 풍긴다.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은 뉴스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에 많이 의존(Patterson, 1980:119)하는데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선 과학적 여론조사가 잘 행해지지도 않고 있으며 행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언론은 경마식 보도에 있어서 입후호보자의 우·열을 취재기자들의 감각이나 정당들에서 내보내고 있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백선거, 1995:23)는 것이다. 백선거는 그리하여 자연적으로 각 지역 내의 위치나 학력이 높은 사람, 공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열을 보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비과학적인 우·열이 선거 결과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용자들이 정보 해독 과정에서 어떤 입후보자가 먼저 취급되거나 많이 취급되는지의 여부가 바로 그 입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우선 순위적 취급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백선거, 1995:23). 정당배경이 없는 여성후보의 경우 매스컴에 의해 쉽게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황산성후보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요 후보가 아닌 군소후보로 매스컴에 분류되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고 하겠다. 황산성후보는 관훈클럽과 KBS가 소위 빅3후보 만을 초청하여 토론회, 특별회견을 갖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언론의 공정 보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은 언론사 고유 권한이라고 해석하므로써(조선 5/27) 언론사가 소위 빅3후보에만 보도 비중을 집중시키는 것을 막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선거전을 펼쳐야 했다.

단지 중앙일보(6/13)가 서울시장 여성후보들의 인터뷰에 지면을 할애하였고, 조선일보가 여성시장후보의 조우라는 설명으로 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한 여성유권자의 날 행사에 마주친 황산성, 김옥선 두 후보의 사진을 실어, 군소후보로 분류된 다른 서울시장 후보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지면 할애에 약간 유리하였을 뿐이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황산성후보는 '알뜰한 살림꾼의 모습'이나 '당찬 면모를 엿'보게한다고 묘사되었다. 자신도 '여성이기 때문에 난마처럼 뒤엉킨 서울시 행정을 실타래 풀 듯 정성스럽게 풀어 그 위에 수를 놓듯 꼼꼼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후보의 특성을 묘사한 기사는 '포청천 같은 불편부당 청

렴결백한 시장'의 모습을 지향하고 '여성의 알뜰함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살림살이 서울시정을 꾸려 나가겠다'(한계례 5/17)으며, '공평무사하고 소신이 뚜렷한 행정전문가'(한국 5/17) '푸른 고향 새서울은 알뜰 살림꾼 황산성과 함께'(동아 6/17), 청렴성과 신뢰성을 가진 진짜 포청천시장(한국 6/17)이 되겠다고 하였다. 공약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아이디어를 낸 것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와 서울의 교통, 환경문제, 안전시설 보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중앙 5/16)등을 내세웠다. 황산성후보는 신문을 통해 여성다움과 공정한 행정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투영하고자하였다. 그러나 군소후보로 이미 낙인 찍힌 후의 이러한 공약과 내세운 후보의 특성은 유망한 후보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에 역부족이었다 하겠다.

전재희후보와 황산성후보를 비교하여 보면 보도횟수와 지면 크기에서 황산성후보는 매우 불리했고 당선 가능성에서도 불리하게 규정되었으며 황산성후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묘사도 현저하게 부족하고 자신이 내놓은 후보의 성격 또한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뉴스매체가 규정하고 난 후에 후보가 긍정적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해도 유권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후보의 당선과 황산성후보의 낙선은 이러한 신문 보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2) 여성단체 활동

표 5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기사(%)

	중 앙 지	지 방 지
행 사	14(48.3)	22(34.4)
유권자의 날	4	4
3/8여성대회	4	5
후보초청토론회	3	5
기 타	3	8
활동 전반	3(10.3)	22(34.4)
공천/할당제	7(24.1)	7(10.9)
여성정책과제	1(3.4)	5(7.8)
공명선거	3(10.3)	4(6.3)
자원봉사자	1(3.4)	2(3.1)
기 타	0(0.0)	2(3.1)
계	29(100.0) (31.2)	64(100.0) (68.8)

여성단체에 관련한 여성지방자치 선거 참여에 관한 기사는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전체 기사 중에서 21.1%로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표2). 개별신문으로는 한겨레신문이 모두 15회에 걸쳐 보도하여 가장 많이 실었으며 지방지 중에서는 무등일보가 14차례로 가장 많이 실었는데, 이 두 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의 기사를 실었다. 또한 중앙지가 대체로 지방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더 많이 실었다(표2).

여성단체 활동 보도횟수와 전체 보도횟수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2418<.05$) 여성단체 활동을 활발히 보도한 신문은 전체 여성정치 참여 보도 횟수가 많아 여성단체 활동이 여성 정치참여 보도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여성단체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활동을 활발히 펼칠 경우 신문이 보다 이에 관한 기사를 많이 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지가 특정 행사와 할당제 등의 쟁점에 관한 보도에 주력하였다면 지방지는 여성단체 활동을 개괄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 이는 중앙지의 경우 전체적인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전제하고 특별한 행사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지의 경우, 행사에 관련된 기사와 더불어, 활발하지 않았던 여성단체가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가 많았다고 하겠다.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기사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여성단체의 행사에 관한 보도이다. 여성단체연합과 산하 지방소재의 단체가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해 개최한 행사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남녀유권자 한마당>을 개최하고 후보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행사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전국의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날 대회에 관한 기사는 단체 행사에 관한 보도 외에도 이날 소개된 여성 후보자를 중심으로도 다루어져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6월13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개최한 <유권자의 날> 행사는 각 지부별로 동시에 전국 5개 도시에서 거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개최된 이날의 행사도 각지역 신문에서 보도되어 여성유권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대구여성회등 대구지역 5개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시장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벌인 것은 대구 뿐 아니라 전국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대구지역에서는 구청장들을 여성단체가 초청하여 여성과 생활관련 공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여연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이를 지역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대구, 전북, 수원, 광주, 전남등의 여성단체들도 과제를 기자회견등을 통해 제시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밖에도 각 여성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와 공명선거 캠페인등이 보도되었는데 공명선거 캠페인은 여성단체가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한 행사였으나 이번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 보다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반

영되었다 하겠다.

여성단체에 관한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단체 활동 개관은 여성단체가 여성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연대를 하여 후보를 적극 발굴하며 또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 관한 기사로 대부분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생활정치는 여성에게 맡겨라'(중앙 3/19), '여성들 지방의회 진출 적극 지원'(매일 3/14), '여연 지방선거 후보 14명 발굴'(대구 3/8), '도내 여성계 정치참여 움직임 활발'(전북 5/1), '여성대표 지방의회 진출 관심-여성정치 진출 원년. 여성계 총력 지원'(강원 6/14), '지역살림, 여성에 맡겨요-지자체 부산여성연대 결성'(국제 4/1), '6. 27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여성계 관련행사 열기'(매일 6/4), '지역여성계 여성후보자 본거지원(매일 6/22), '지방자치 <생활자치>로 만들자-여성단체 움직임 활발'(경기 6/15), '정치 참여 20%를 향하여-여성계 바쁜 행보'(대구 3/8)등이다. 특히 서울, 원주, 경남, 부산, 전주 지역여성들의 연대하여 여성후보를 발굴, 지원할 것이라는 기사는 여성계가 합심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일부 기사가 여성단체가 여성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후보 지원은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지방의회 선거 여성출마자 속탄다- 여성단체 소리만 요란 지원 낮잠(매일 5/8))도 있었으나 여성단체 활동에서 여성들이 여성후보를 도와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가 여성이 정당의 공천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이라고 보고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공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서울의 56개 여성단체가 모여 <여성 할당제를 위한 연대모임>을 구성하였고 전주에서 <지방자치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전북여성연대회>을 결성하여 여성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데 힘을 기울였다. 공천 할당제에 관한 보도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위한 연대>(이하 여성연대)가 지역구 국회의원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가 전국적으로 5개지에 실렸다. "지방정치 여성참여 늘려야" 93%(동아 3/4), "'의원 공천 20% 여성할당 도입시기 6월 선거 적정"(한겨레 3/4), '보다 많은 여성정치 참여해야'(충청 3/8), '여성지방정치 참여 확대-국회의원 94% "찬성"'(경남 3/6)등의 기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할당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또 다른 기사는 지구당위원장으로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성정치 참여확대 "말뿐"-90% 찬성 불구 후보자 발굴 소극적'(경기 3/9)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기사에서 지방정치에 여성참여 확대를 국회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인용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실제로는 여성후보자 발굴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여성연대의 활동도 신문의 뉴스 꺼리가 되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보다 많은 여성을 공천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하고 로비활동의 일환으로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한 것에

대한 기사 (조선 3/24, 한겨레 5/16: 경기 3/24)가 있으며, 지방에서도 <지방자치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전북여성연대회>가 여성할당제 촉구하는 활동에 대한 기사가 있다 (무등 3/24). 공천이 끝나고 난 후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제1기 지방자치 선거 때 보다 오히려 줄어들은 결과에 대해 여성계가 반발한 것에 대해서 기사로 실고 있다. '지자선거 여성공천 너무 적다'(동아 6/10), '여성계, 민자공천 확대반발'(경남 5/24)등의 기사로 정당이 여성을 후보로 공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한 보도에서 극히 일부분 부정적이 보도가 있었으나 여성단체들이 여성공천 할당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연대를 결성하였고, 또한 여러가지 행사를 펼치므로서 신문의 뉴스를 제공하였고 신문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 긍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성단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후보자의 배우자

표 6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련된 기사(%)

	중 양 지	지 방 지
여성배우자	17(89.5)	41(100.0)
후보부인 인터뷰	6(31.6)	15(36.6)
선거 기간 중의 활동	10(52.6)	21(51.2)
선거 운동	7	18
유세	3	3
부인이 본 후보자 기고	0(0.0)	2(4.9)
당선 후의 인터뷰	1(5.3)	3(7.3)
남성 배우자	2(10.6)	0(0.0)
	19(100.0)	41(100.0)
	(31.7)	(68.3)

후보의 배우자는 이번 통합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서 후보와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배우자의 활동이 선거 운동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새로운 선거 운동 양상으로 후보의 배우자는 큰 관심을 끌었다. 그리하여 전체 보도기사 중 14.1%로 세번째로 많은 기사가 실렸다(표2).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지방지로는 대구일보가, 중앙지로는 중앙일보가 가장 많은 횟수의 관련 기사를 실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비교할 때 중앙지가 평균적으로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기사는 남성후보의 여

성배우자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후보의 남성배우자에 관한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 밖에 여성당선자 인터뷰기사에서 남성배우자가 당선자인 아내에 대한 평을 실은 것 뿐이었다.

가. 여성 배우자상

후보들의 부인인 여성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여성 배우자 자신이 한 말을 기자들이 취제한 사실과 이에 대한 판단으로 기술되었다. 후보 부인들의 여성상은 여성 배우자 대부분이 집안의 사적 영역에 머무르면서 전통적인 가정내의 여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위 여성답고 인내하며 겸손한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으로 묘사되었다. '집안 대소사는 자신이 처리하지만 바깥 일 만큼은 남편의 결정을 믿고 따랐다' (중앙 5/21), '*후보가 미국 유학생활동을 하던 10년 동안 *여사는 네 아들과 함께 농군이나 마찬가지 일을 하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린 적이 없었고 특히 시어머님 (63년 작고)이 1년 이상 투병할 때는 밥을 일일이 썰어 병구완을 했던'(중앙 5/21),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까지 모두 열두명의 식구를 훌륭히 거둔 만머느리'(중앙 5/21), '두번씩 미국에 혼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식구를 모두 내가 보살폈으니'(중앙 5/21), '팔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대구 5/30) 등에서는 남편의 부재시에도 시집 식구를 봉양하고 시부모를 깎듯이 모시는 인고하고 희생하는 아내, 며느리 상으로 여성의 가정 내의 역할과 관련하여 묘사되었다.

또한 여성배우자들의 성품은 순종하고 조용하며 차분하며, 부드럽고 수줍음 많은 나서지 않는 겸손하고 전형적인 여성다운 여성으로 나타나있다. '남편이 <잘사는 전북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망에 순종하여 그를 전북도민에게 바치기로 결심했고'(전북 6/7), '원래 수줍음이 많이 타는 내성적인 성격'(동아 6/4), '사람 만나는 것을 수줍어한다'(동아 6/4), '묵묵한 내조'(동아 6/4), '봉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대구 5/30), '성격은 차분 그 자체다', '내조형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대구 5/30), '내성적 성격. 가정에서의 알뜰한 야당역', '조심스럽고 단정한 예법이 몸에 밴,' '크게 나서지않고 항상 조용하면서도 단아한 성품,' '수줍음 많은 안방마님'(광주 6/6) 등이 여성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자신과 기자들의 평가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상은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성배우자 자신도 '아직은 여자가 메스컴에 나서게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중앙 5/21)했다고 했는데, 이는 여성은 나서기보다 뒤에 물러나 있어야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있거나 또는 그러한 여성이 유권자들에게 겸손하게 보여 호감을 줄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진취적 여성상은 극히 일부분으로 '강인한 생활력,' '솔직 담백한 성격'(중앙 5/21), '활달한 신여성,' '성격 또한 아주 활동적이고 명랑하다,' '싫고 좋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적극적인,' '구청어머니회장'(동아 6/4), '스포츠 우먼'(대구 5/30), '주관 뚜렷한 신여성'(광주 6/6) 등 일부 여성배우자들을 적극적이고 활달한 여성으로 묘사했다.

여성배우자에 대한 외모 묘사는 극소수였다. '작은 키에 갸름한 체격. 잘 생긴 얼굴과는 달리 거칠어진 손과 잔주름'(중앙 5/21), '동네할머니 같이 평범'(중앙 5/21)등 평범하거나, 왜소한 여성으로 그동안의 고초에 시달린 여성이라고 묘사하였다.

기사에서 여성배우자가 전통적인 여성상이나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될 때 모두 기자는 여성배우자에게 호의적으로 썼으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압도적 많이 묘사한 것은 실지 후보 부인들이 그러한 여성일 수 있으나 또 한편에서는 후보의 부인들이 전통적인 여성으로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주어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묘사된 여성배우자들도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사회진출을 제한받아서는 안된다'(중앙 5/21), '여성도 가능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다'(중앙 5/21)고하여 사회진출을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의식하기도 하였다.

나. 여성배우자가 말하는 남성후보

여성배우자들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과 관련하여 묘사된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된 것에 비해 아내가 묘사한 남성 후보자는 대부분 집밖의 공적 영역에서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공직을 향한 선거에 입후보했다는 점이 공적 영역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하더라도 가정 내의 역할에 관해서는 극소수인 것은 여성 배우자의 역할과 여성상과는 대비된다고 하겠다. 후보인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묘사는 '정직과 일에 대한 집념에 끝없는 찬사'(전북 6/7), '자칫 여자다운 투정을 할 때도 없지 않지만 늘 아량으로 감싸줄 때 무한한 애정을'(전북6/7)느끼며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에 발탁하겠다'고 할때는 감사한다는(전북6/7)것으로 부부관계가 성숙하고 유능한 남편과 미숙한 아내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남편이 선출되면 여성을 중용하겠다는 것도 남녀 평등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 아닌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경'(전북 6/7)하며 '갓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중앙 5/21), '원칙이 확실하며 윗사람에게는 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이'(중앙 5/21), '무뎌진 분'(동아 6/4),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눈치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사람'(중앙 5/21), '남자답고 듬직'(대구 5/30), '속이 깊다는 느낌'(대구 5/30), '다정다감한 사람,' '기분파'(대구 5/30), '남편은 겁약해'(대구 5/30),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에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전북 6/21), '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춘 사람,' '직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료이자 윗사람으로 평가받고'(전북 6/21), '포용력있고 지적으로 자신을 압도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남편'(광주 6/6)등으로 아량이 크고 소신있고 원칙있고, 통이 크며 성격이 좋고 능력있으며, 지적이며 존경받는 남성다운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능력이나 덕목은 대부분이 사회생활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남편의 사회적인 역할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정과 연관하여서는 '가정에서는 따뜻하고 신뢰있는 가장'(전북 6/21), '제 친구들은 저의 남편을 평할 때 여성을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곤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와 딸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세심한 일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합니다'(전북 6/6)라는 한 후보 부인이 남편의 가정 내의 일면을 묘사했을 뿐이다.

남성후보자와 그 아내는 소위 남성다운 남성과 여성다운 전통적 한국여성으로 매우 전형적인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성은 안 일에 충실한 전통적인 내조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남성은 바깥 일에서 유능하고 적합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 선거 운동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후보의 여성배우자는 이미지로는 가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선거전에서도 남편의 건강 관리 등의 가사노동 전담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내조의 연장으로서 한결 같이 운동원으로 동원되었다.

'선거내조 TV검증'(대구 6/19), "'핏줄이 최고' 가족 총출동- 부인 선거사무장 선임 <공명> 자랑'(대구 6/22), '후보부인 하루가 짧다'(무등 6/20), '대전 충남 광역장 후보부인 내조 베타 직장까지 옮기며 합류,' '가두연설 위해 맹훈련,' '제과점 운영 자금지원,' '지역부녀회 집중 접촉,' '모임참석 등 발로 뛰기,' '여성당원과 대화치중'(대전 5/23), '지사후보 부인 요즈음- 남편 따라 저도 바빠요'(충청 6/9), '빅3부인들도 바쁘다 바빠'(한국 6/6) 등의 표제에서 보듯이 후보의 부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후보가 시간상 제약으로 못 미치는 곳을 대리자로서 활동, 득표활동을 펼쳤다. '※ 후보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변층, 여성표 확보에 눈코 뜰새가 없다'(대구 5/30), '매일 12시간 이상 시장바닥 상가 마을 골목을 살살이 누비며 서민층을 파고드는 주력'(강원 6/26), '후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곳을 둘러 ※ 후보의 지지를 부탁'(전북 6/21), '※ 여사가 주로 찾아가는 곳은 강후보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나 시장, 여성단체 등이다'(전북 6/21), '남편을 대신 경조사 뿐 아니라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여론을 수집하기도'(동아 6/4) 등 남편의 대리자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 30대의 여성배우자는 '경험이 없고 나설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뒤에서 소리 없이 도우려합니다.'(전북 6/21)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에서도 소위 여성다운 겸양으로 앞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도우겠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 자신이 전통적인 여성다운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운동에서 여성배우자들은 맹렬히 활동하는 것은 운동의 주도자로서가 아닌 헌신적인 집안 내조의 연장으로서 이어진 것이라 하겠다. 남편이 하는 일에서 부족한 것을 메꾸어가며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한 아내가 해야하는 역할의 일부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후보의 보조자이며 대리자로서의 활동 하는 것으로 이는 전통적인 내조자로서의 역할의 또 다른 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사도 여성배우자들의 맹렬한 내조 활동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여성들의 집안에서의 남편 시중자로서 전통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빠짐 없었다. 강원일보(6/26)는 도지사 시장후보들 부인 건강내조법을 전면에서 걸쳐 소개하면서 '24시간 별미 총동원 체력보완-보신용 사골탕서 성대보호 식초물까지'의 표제로 전면에서 걸쳐 여성배우자들의 남편의 건강관리에 대해 싣고 있다. 두 지사 후보 부인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신선한 과일 간식 준비,' '홍삼달인 물로 성대보호 피곤시 특제조 청심환 복용' 등 각 후보 부인들의 건강 관리의 내조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그 밖에 '건강돌보기 최선'(광주 6/6) 등 여성배우자들은 선거 운동에 바쁘지만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돌보는 시중역할이 계속되고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후보의 부인들은 전통적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으로 투영되고 있다.

6. 27 지방자치 선거에서 적용된 통합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세를 할 수 있게 규정하여 배우자의 유세가 새로운 선거 운동의 방법으로 등장했다. 여성배우자들의 유세는 이색적인 뉴스 꺼리가 되어 지방지와 중앙지가 각각 이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선거유세 후보부인들 더 신바람'(중앙 6/16), '부인유세가 더 인기'(충청 6/14) 등으로 부인들의 유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강조했다. 강원일보(3/31)는 부인 유세의 요령을 싣기도 하였다. 또다른 이색적인 부인의 선거활동으로는 민주당 공천 파문으로 인하여 전남 영광지역에 김봉렬후보가 구속되자 그 부인이 대신해 공천자를 받고, 선거 운동을 대리한다는 것(무등 6/21)과 경기도 부천시장 후보 4명이 구속되자 모두 옥중 출마하여 부인을 통한 대리 선거전을 벌였다(경기 6/27)는 기사가 있으며, 이해봉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선희씨가 공직자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되어 "남편이나 법이나"(매일 6/15), 동아(6/23)로 고민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라. 남성 배우자

선거에 입후보한 여성후보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여성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 밖에 전제회시장의 당선 후 인터뷰에서 남편이 전 후보를 '억척스러운 여자'로, '성실한 살림꾼이어서 시정을 알뜰하게 이끌어 갈 것'(동아 6/29) 평한 것 등으로 남성 후보의 여성배우자와는 신문 등장 횟수에서 부터 대비된다 하겠다. 선거운동에서 남성배우자의 역할은 두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보도하였다(중앙 6/20). 첫째는 직접 득표 활동 뿐 아니라 연설문 작성 등 선거 기획 등 선거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둘째의 경우 남성배우자가 간여하지 않는 경우였다.

남성배우자의 역할은 여성배우자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배우자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우나 득표활동에 있어 대리자로서 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비해, 선거운동에 간여하는 경우는 보다 기획 등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둘째의 경우 남성배우자가 간여하지 않는 경우였다.

남성배우자의 역할은 여성배우자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배우자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우나 득표활동에 있어 대리자로서 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비해, 선거운동에 간여하는 경우는 보다 기획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성배우자와는 전혀 다르게 비추어졌으며 또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여성배우자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배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전통적인 부부관계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후보자의 아내가 내조의 일부분으로 선거운동에 보조자로 나선 것이 전통적인 역할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배우자의 경우 전통적인 부부관계에서 가장으로 주도적인 입장의 연장으로 비록 아내가 출마하였으나 선거운동에서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호의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아내의 일에 남편이 나서는 것이 남성답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관념에서 남편이 직접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아내가 남편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본다면 이는 신문이 전통적인 부부관계와 남성상에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비례대표제

표 7 비례대표제에 관한 기사(%)

	중 양 지	지 방 지
공천후보	3(21.4)	14(31.1)
정당의 후보선정 고민과 여성계의 경쟁	7(50.0)	9(20.0)
여성후보 할당 비율	3(21.4)	6(13.3)
도입과 해설	1(7.1)	6(13.3)
유권자의 비례대표에 대한 의견	0(0.0)	3(6.7)
공천의 문제점	0(0.0)	3(6.7)
시민단체의 기대	0(0.0)	2(4.4)
기타	0(0.0)	2(4.4)
계	14(100.0)	45(100.0)

비례대표제는 6.27 선거를 맞이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제도 신설과 그에 관한 해설, 후보에 대한 관심 등으로 후보의 배우자에 버금 가는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13.4%를 차지하여 네번째로 많은 기사였다(표2). 여성 지방자치 참여 관련 기사 중에 다른 영역은 모두 중앙지가 지방지 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기사를 실었으나 비례대표제와 관련되는 기사는 지방이 중앙지보다 더 많은 보도를 하였다.

강원일보가 신문으로서 가장 많은 횟수의 기사를 실었다. 비례대표제에 관한 기사에서 여

성후보 공천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두번째로는 정당의 후보 선정 고민과 여성계의 경쟁에 관한 것이었다 (표7)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신문 보도는 3월초 여야가 합의 하에 광역의회에 있어 비례대표제를 신설하기로 결정이 나자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와 해설을 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비례대표제가 신설되자 이는 여성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강원일보는 '비례대표 여성 몫으로'(3/10)라는 사설을 싣고 여성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가 여성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것을 타파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전부를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여성후보를 비례대표 중에서 얼마 만큼을 할애할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방침이 계속 추측 기사로 보도되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대거공천'(동아 3/16),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여성대폭 공천 방침-민자 민주'(3/16),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으로 채운다-70-80% 공천 내부 방침 (강원 3/24) 등 각 신문은 각 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대거 공천할 것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기대가 사회조사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유권자들은 비례대표는 여성에게 할당해야한다는데 호의적이었다.

비례대표 공천 확정을 위해 후보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자, 정당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수많은 경쟁자 중에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와 함께 여성계의 인사들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치열한 로비를 벌인다는 기사가 실렸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각 정당들 인선 고심-중앙-지부 갈등 양상에 직능, 여성대표 지분도 얹혀'(한국 6/3), '민자공천 끝머리-광역의회 비례대표 신청 쇄도-여성 노동계등 할당 요구 봇물'(동아 5/26), '여성경쟁 치열-광역의회 비례대표 따내라'(동아4/6), '대구, 여성할당 두자리에 7명 경합-비례대표 선정 민자당 끝머리', '시끄러운 여성계'(매일 6/2), '민자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고심-지역여성계 갈등심화. 분열 조짐'(대구 5/30) 등의 기사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여성들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계가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 비난하면서 서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여성 지방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 여성후보와 이들을 위한 여성단체의 단결된 지원등으로 호의적이었던데 비해 비례대표에 관한 기사에서는 여성의 분열과 대립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6월 초에 각 정당은 여성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고 발표하자 이에 관한 보도와 해설 기사가 실렸고 여성계는 여성후보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 대한 반발하는 기사가 실렸다.

비례대표제는 실지 여성단체가 연대를 결성하여 20%공천할당제를 추진하였으나 실지로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신설하고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에게 배려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신문의 태도는 여성의 정

치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여성 간의 경쟁과 분렬의 양상을 강조함으로써 여성 지방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에서 부정적인 면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었다.

5) 유권자

표 8 여성유권자에 관한 기사(%)

	중 앙 지	지 방 지
여성유권자를 겨냥한 각당의 전략	3(17. 6)	10(38. 5)
여성표의 중요성	6(35. 3)	6(23. 1)
여성유권자의 성향 분석	6(35. 3)	3(11. 5)
여성유권자가 바라는 후보상	2(11. 8)	5(19. 2)
유권자들의 반응	0(0. 0)	2(7. 7)
계	17(100. 0)	26(100. 0)

유권자에 대해서는 9. 8%의 기사 비중으로 전체에 10분의 1에도 못미쳤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었고 중앙지가 지방지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표 2). 유권자에 관한 기사의 주요 부분은 여성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여성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각 당과 후보의 전략에 대해 보도하였다.

나머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유권자로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사이다.

각 정당과 후보가 여성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과 전략을 모색한다는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표8). '여야 여성표를 잡아라'(국제 6/3), '흔들리는 여심 절반의 선택 향배도 촉각 평등한 취업기회보장등 공약 봇물'(대구 6/23), '청년·여성표를 잡아라-여야 "당락 변수" 선거전략 집중'(경남 5/2), '지방선거 여성표를 잡아라-민자 탁아소 증설, 남녀고용평등법 보완, 민주 직장보육시설 확대, 여성직훈 설치'(경남 4/24), "여성유권자들 잡아라'특명'(경기 3. 26)등으로 각당이 여성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그 밖에 무소속의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여권선언문(대구 6/24)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정당의 여성대변인을 임명하거나, 여성위원회모임을 구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도하였다. 한편에서는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이성적으로 투표하기 보다는 감성적이라며 이를 겨냥한 선거 전략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서울 시장 후보 중의 소위 빅쓰리는 여성을 겨냥한 정책과 공약 개발하기에 부심하지만 가장 큰 전략은 "“좋은 이미지로 감성에 호소하라”(중앙 6/6)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도하였다. 여성유권자는 정책을 판단하여 이성적으로 찍기 보다 감성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전략적으로 감성과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후보와 정당이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는 계몽적인 기사가 두번째로 많았다(표8). '여성표에 달

렸다'(조선 5/11)의 표제에서도 보듯이 여성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여성 유권자들의 바른 권리 행사를 촉구하면서 여성이 여성후보를 찍지않는 것을 비난했다. 이러한 기사는 주로 칼럼이나 기고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남성칼럼니스트들(조선 5/4, 전북 4/1, 경남 5/18)도 여성유권자들의 자각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유권자가 여성후보를 찍지않는 것을 우려하고 고쳐야한다는 주장(중앙 6/22)도 하였다. 유권자들 중에서 유독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칼럼을 실어 여성유권자들은 자신의 한표의 중요성을 모르는 미숙한 집단으로 비추어졌다. 여성유권자들은 유권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나 자신이 자신의 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으며 여성이 여성후보를 찍지않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투표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투영되었다.

유권자에 대한 성향 분석은 세번재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여성표는 '6. 27지방선거 "女論이 輿論"'(국제 5/27)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을 초과하는 여성표 잡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대, 여성표 향방 주목'(중앙 6/10), '지방선거 여성표 어디로'(매일 4/24) 등의 기사로 여성이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지가 큰 관심 거리였다.

여론 조사에서 여성은 정당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것을 보도하기도 하였다(무등 6/24). 다른 신문은 여성들이 인물위주로 투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하였다(매일 4/24).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의 표와 더불어 여성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는 여성표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점 보도되었다.

여성유권자가 바라는 후보상은 일반적인 공직자상과 더불어 생활과 관련된 공약과 남녀평등 등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후보를 꼽았다. 여성유권자의 동정에 관한 기사는 주로 사진으로 다루어져 이 연구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6) 운동원

6. 27 지방자치 선거운동에서 여성이 선거 운동원으로 대거 동원되었다. 운동원에 대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미미했으며 지방지에서는 극소수 만이 여성운동원에 대해 기사를 다루었다(표 2). 선거에서 길거리와 유세장에서 득표활동을 벌리는 운동원은 한복을 입은 중년여성 아니면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운동원에 대한 보도는 주로 보도 사진으로 다루어져 기사로서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대구일보는 지방선거 자원봉사자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7/17), 6. 27 선거의 '신 풍속도'로 '선거에 도우미 바람-미녀 동원 골목, 악수유세 求票 작전'으로 선거에서 초미니 치마를 입은 모델을 동원하여 성적으로 눈길을 끄는 작전이 새로운 선거 풍속도로 소개되고 있다(한국 6/15; 동아 6/18). 여성은 선거운동에서도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어 득표활동에 나서는 것이 새로운 형태로 흥미거리 기사로 비판 없이 다루어진 것이 문제로 남는다.

그밖에 김장숙 정무 제2장관이 지방순회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야한다는 인터

류 기사가 실렸다.

3. 월별 여성 지방정치 참여 보도 경향

여성 정치 참여에 관한 보도 경향은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한 4달동안에 월별에 따라 기사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표9). 선거의 달이었던 6월에 반 이상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3월에 두번째로 많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중앙지의 경우 5월이 두번째로 많은 기사를 실렸다. 4월에는 중앙지, 지방지가 공통적으로 가장 적은 기사를 실었다.

표 9 월별 신문별 기사(%)

	3월	4월	5월	6월	계
동 아	3	2	5	21	31
조 선	7	1	9	16	33
중 앙	4	0	7	23	34
한 국	5	0	4	11	20
한 계 려	7	4	6	18	35
소 계	26	7	31	89	153
평 균	5.2 (17.0)	1.4 (4.6)	6.2 (20.3)	17.8 (58.2)	30.6 (100.0)
강 원	8	4	4	14	29
경 기	9	0	1	9	18
경 인	1	1	6	12	19
충 청	2	1	2	16	21
대 전	2	0	4	4	9
매 일	3	2	2	21	28
대 구	5	2	11	25	43
전 북	4	3	2	14	23
광 주	4	0	0	10	14
무 등	5	5	6	22	38
국 제	10	5	1	2	18
경 남	5	3	6	13	27
소 계	58	26	41	162	287
평 균	4.8 (20.2)	2.2 (9.1)	3.4 (14.3)	13.5 (56.4)	23.9 (100.0)
총 계	84	33	72	251	440
평 균	4.9 (19.1)	1.9 (7.5)	4.2 (16.4)	14.8 (57.0)	25.9 (100.0)

표 10 월별 기사내용별 분포(%)

	후보	여성단체	후보자부인	비례대표제	유권자	운동원	정무장관	기타	총계
3월	24	35	1	18	2	0	4	0	84
4월	13	9	1	6	2	0	0	0	33
5월	27	14	11	6	9	0	1	2	72
6월	104	35	49	28	27	6	0	2	251
총계	168	93	62	59	43	6	5	4	440

시간별로 보면 신문은 년초 부터 계속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3월에 들어서서는 공천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상 후보의 보도와 함께,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그 산하 단체들이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면서 추천 후보를 공개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남녀유권자 한마당'라는 제목으로 '열린정치 생활정치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라는 구호로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서 후보들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했다. 이 행사와 관련한 여성단체 활동이 3월달의 여성정치참여 관련 기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성단체 활동이 3월의 여성지방 정치 참여 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표10).

또한 3월에 여야가 합의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한 보도기사와 해설이 연이어 보도되어 선거를 세달 앞 둔 시점에 비교적 활발히 보도되었다. 3월에는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국회의원 146명을 대상으로 여성공천 할당제에 대한 태도 조사의 결과를 각 신문이 보도하였다. 또한 정무장관이 전국순회를 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대를 촉구하여 3월에 여성관련 정치 기사를 늘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 양당이 본격적으로 공천을 시작하면서 신문의 관심사는 단체장 후보에 쏠렸다. 광명시장의 민자당 후보가 여성으로 정해지면서 단체장 후보에 대한 기사는 여성후보자에 대한 보도로 시작되었지만 여성 단체장 후보로 논의된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여성후보자에 대한 보도도 거의 없고 여성단체도 뚜렷한 행사를 벌이지않아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보도 또한 사라져버렸다.

5월에는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신문은 다시 예상 후보에 관해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여성 단체가 연대하여 여성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보도로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한 기사가 늘어났다. 또한 여성유권자의 성향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기사가 늘어났다. 또 5월에 들어서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을 비롯하여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그 배우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 후보부인들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

6월은 6월 12일 후보등록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당연히 입후보할 후보에

대한 소개와 활동이 기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다시 후보자의 여성배우자와 그들의 활동도 보도의 초점이 되었다. 여성단체 활동은 주요한 것으로는 여성유권자연맹이 개최한 <유권자의 날> 행사에 관련하여 보도하였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년초 1995년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연맹이 일차적으로 추천하는 후보를 발표한데 이어 또한 창립 26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날을 유권자의 날(6월 13일)로 선포하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서 지부가 일제히 여성후보를 부각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선거운동이 막 시작된 시기에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 행사는 선거운동이 막 시작한 시기에 각 지방 매스컴에 주목을 받았다. 그 외 여성단체가 벌이는 공명선거와 여성후보 지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지방 여성단체는 이달에 여성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또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과 후보의 발표 등으로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기사도 활발히 실렸다.

4. 지면별 기사

여성관련 정치 기사는 신문의 전 지면에 걸쳐 보도되었다. 그 지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면 등 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면과 소위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여성, 생활, 가정면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면이 생활, 가정면이라고 이름 지워진 신문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을 위한 면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여성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 때, 3분의2 이상이 전자인 일반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앙지와 지방지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11).

여성이 남성 후보와 함께 다루어질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일반면에서 다루어졌고, 비례대표제에 관한 보도도 대부분이 이러한 면에 실렸다. 후보의 배우자, 유권자, 운동원 등의 기사도 일반면에 실렸다. 여성단체 활동도 주요 남성 인물과 연관될 때는 일반면에 실렸다. 그 예가 여성공천활당제를 위한 연대 모임이 여성 공천을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난 기사는 정치면에 실렸다. 또한 여성연대의 국회의원 146명 설문조사결과-의원 공천 20% 여성할당, 도입시기 6월선거 걱정'등도 일반면에 실렸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남성과 같이 다루어질 때와 남성과 연관된 여성들(배우자)에 관한 기사는 일반면에 실렸다 하겠다. 그 외에 '지방정치 여성참여 늘어야'(동아 3/4) 등 여성관계 기사도 정치면 등 일반면에 가끔 실리기도 했다. 여성정책과제 발표와 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토론회도 같은 난에서 다루어졌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가 일반면에 대부분 실린 것은 남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심을 환기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 중에서도 여성들만 등장하거나 여성이 관심있다고 간주되어진 기사는 여성면에 실렸다. 여성단체의 활동과 행사에 관한 보도는 대부분 여성면에 집중되었고, 또한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후보들만 따로 모아 소개할 때는 여성난에 실렸다.

표11 지면별 여성지방정치 참여 관련기사 비율(%)

		정치, 경제, 사회면	여성, 생활, 가정면
동	아	64.5	35.5
조	선	87.8	12.2
중	앙	67.6	32.4
한	국	75.0	25.0
한	계	57.1	42.9
평	균	70.4	29.6
강	원	75.9	24.1
경	기	72.2	17.8
경	인	57.9	42.1
충	청	71.4	28.6
대	전	100.0	0.0
매	일	46.4	53.6
대	구	76.7	23.3
전	북	65.2	34.8
광	주	35.7	64.3
무	등	50.0	50.0
국	제	72.2	27.8
경	남	92.6	7.4
평	균	68.1	32.0
총	평	69.3	31.7

여성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여성면을 비판가들은 계토(ghetto)라고 부르거나 남성 편집자가 “여성 기사”라고 생각하는 아무것이나 실는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여성면은 모든 뉴스가 남성을 위한 남성에 관한 뉴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한 부분은 여성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남성을 위한 것이며, 여성면은 여성을 위한 부분이고 남성을 위한 면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여성은 ‘분리되지만 동등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면이 여성면으로 명명되면 남성들은 여성면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Pingree & Hawkins, 1978:126)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여성면에 여성운동기사를 실는 것은 이 운동이 단지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것이며 여성의 권리는 중요하지않는 쟁점이라는 좋지않은 의미를 시사한다는것이다. 단지 위안은 보도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Gay Tuchman등은 여성면을 여성 권리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위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했다 (Pingree & Hawkins, 1978:119). 여

성운동에 관해 보도할 수 있는 지면이고, 이 지면에 여성운동에 대해 실릴 때 보다 길고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적어도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릴 지면이 대부분의 신문에 있다는 것이다 (Pingree & Hawkins, 1978:119-120). 특히 여성은 여성들에 대해 읽고 싶어하며 여성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여성들은 여성면에 탐익(Rice, 1978:40)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주부가 여성란을 다른 어떤 직업보다 자주 본다는 (한국언론연구원, 1990:19) 것이다.

여성들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여성란의 기사는 여성의 의식계발과 여성후보에 대해 여성유권자들이 호의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여성후보들은 따로 여성란에 소개되어 여성유권자들 사이에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남성 후보들이 못 누리는 특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을 안찍는다'는 말에 나타나듯이 여성유권자가 여성후보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성란이 여성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5) 기자 성별 기사

여성기자의 증가는 뉴스 내용을 변화시킬 것인가(주년, 1994:338)라는 질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라는 측면과 더불어, 여성기자들은 남성기자들과는 달리 여성문제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전제로 신문사 내의 여성기자 극소수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한국신문방송연감에 의하면 1995년 3월 현재 전국 219개 언론사 종사자수는 모두 40,89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여성은 5,770명으로 그 비율은 14.1%이며 이중 여성 신문 종사자는 전신문종사자의 16.2%로 3,585명이다. 그 중 중앙과 지방의 종합일간지의 경우 여성은 2,989명에 불과하다 (언론연구원, 1995:237-239). 대상 신문의 남녀기자 분포를 보면 여성이 14.6%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중앙지보다 지방지의 여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그러나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인 조사는 각언론사의 전 여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여성언론인은 3.4%에 불과한 대단히 낮은 비율일 것으로 보인다(이경자, 1994:18). 따라서 지방지에 종사한 여성의 비율이 많다고 해도 신문에 기사를 쓰는 전문기자가 반드시 중앙지보다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신문에서 보면 여성언론인은 중앙 5개 신문사 종사자 수가 지방의 12개 신문사의 종사자수와 비슷해 서울의 각언론사는 개별로는 각 지방지보다 많은 여성언론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여기자들은 대체로 문화, 생활, 과학부, 출판부, 교열부, 조사부, 편집부 등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배치 상의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어(이경자, 1994:18) 언론에서 영향력은 매우 제한된다고 하겠다. 이경자는 이러한 언론의 남성 지배적인 인력구조는 개인 및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의 내용과 형식이 남성위주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추측케한다고 분석했다. (이경자,

표12 여성과 남성 언론 종사자(%)

	남 자	여 자	계
동 아	926 (87. 4)	134 (12. 6)	1, 060 (100. 0)
조 선	1, 035 (90. 6)	107 (9. 4)	1, 142 (100. 0)
중 앙	1, 202 (87. 9)	165 (12. 1)	1, 367 (100. 0)
한 계 레	424 (83. 6)	83 (16. 4)	507 (100. 0)
한 국	1, 078 (86. 9)	162 (13. 1)	1, 240 (100. 0)
소 계	4, 701 (87. 8)	651 (12. 2)	5, 352 (100. 0)
강 원	240 (78. 4)	66 (21. 6)	306 (100. 0)
경 기	164 (79. 6)	42 (20. 4)	206 (100. 0)
경 인	237 (84. 9)	42 (15. 1)	279 (100. 0)
충 청	154 (81. 5)	35 (18. 5)	189 (100. 0)
대 전	253 (81. 6)	57 (18. 4)	310 (100. 0)
매 일	376 (81. 7)	84 (18. 3)	460 (100. 0)
대 구	146 (76. 0)	46 (24. 0)	192 (100. 0)
전 북	169 (87. 6)	24 (12. 4)	183 (100. 0)
광 주	295 (82. 9)	61 (17. 1)	356 (100. 0)
무 등	202 (82. 1)	44 (17. 9)	246 (100. 0)
국 제	396 (82. 5)	84 (17. 5)	480 (100. 0)
경 남	223 (79. 6)	57 (20. 5)	280 (100. 0)
소 계	2, 855 (81. 6)	642 (19. 4)	3, 497 (100. 0)
총 계	7, 556 (85. 4)	1, 293 (14. 6)	8, 849 (100. 0)

*언론연구원 (1995) 신문방송연감의 표 10 (p. 240) 재구성

1994:19). 외국의 연구에서도 여성기자들이 남성기자들에 비해 여성문제에 약간 더 강조 (Graber, 1978:32)하며 여성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여성특성 보도에서 여성후보에게 긍정적 평가하여 여성기자가 신문사 내에 있는 것은 여성후보에게 중요한 자원 (Kahn and Goldenberg, 1991a:196)이라는 것이다. 미국여성언론인들은 여성의 시각에서 쟁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미디어의 논제로 설정되도록 추진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여성기자는 선거보도에서 여성특유의 쟁점과 성격을 더 강하게 부각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더 적합하다라는 점을 미디어를 통해 투표자들에게 이해시켰다는 것이다(최선열,1994:67).

표13 기자성별 기사 비율(%)

	여 성	남 성	익 명	계
동 아	16.1	48.3	35.5	100.0
조 선	0.0	84.8	15.2	100.0
중 앙	26.5	44.1	29.4	100.0
한 국	10.0	65.0	25.0	100.0
한 계 려	31.4	51.4	17.1	100.0
소 계	17.6	58.2	24.2	100.0
강 원	6.9	41.4	51.7	100.0
경 기	22.2	55.6	22.2	100.0
경 인	0.0	68.4	31.6	100.0
충 청	0.0	38.1	61.9	100.0
대 전	0.0	33.3	66.7	100.0
매 일	25.0	32.1	42.9	100.0
대 구	18.6	18.6	62.8	100.0
전 북	30.5	13.0	56.5	100.0
광 주	21.4	35.7	42.9	100.0
무 등	42.1	13.2	44.7	100.0
국 제	33.3	55.6	11.1	100.0
경 남	18.5	33.3	48.1	100.0
소 계	20.2	33.1	46.7	100.0
총 계	19.3	41.8	38.9	100.0

본 연구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의 여성관련 지방자치에 관한 기사에서 여성기자는 전체 기사에서 20%에도 못미치는 기사를 기명으로 썼다. 중앙지의 경우 반이상이 남자기자들에 의해, 지방지의 경우 반 가까이가 익명의 기자들에 의해 쓰여졌고 3분의 1이 남성들에 의한 기사로 지방지의 경우 여성기자가 쓴 기사는 더욱 적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기자 보다 남성들에 의해 더 많이 쓰여졌는데 전통적으로 정치 기사는 남성 기자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있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정치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남성 기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하겠다.

여성기자는 여성단체의 여성정치 참여 활동과 후보 지원, 그와 관련한 행사, 여성단체장과 제2정무장관 등의 인터뷰와 여성후보들을 주로 다루었다. '6. 27 지방 선거 앞두고 지역여성계 관련 행사 열기'(매일 6/5), '지역여성계 여성후보자 본격 지원'(매일 6/22), '여성단체 움직임 활발 (경기 6/15) 등의 기사를 통해 여성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여성후보지원 말뿐, 여성후보 속탄다'(매일 5/8) 등의 여성단체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으나 이는 극소수 일 뿐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여성기자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격려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지방선거 여성도 공천을' (동아 4/18), '4대 지방선거 여성후보 1.6% 불과' (한계레 6/15), '여성공천 너무 적다' (동아 6/10) 등이 그러한 기사이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지역구 국회의원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대한 기사, '지방정치 여성참여 늘어야-여성연 지역구의원 설문'(동아 3/4)(p. 18 참조) 등은 각 신문의 여성기자들이 썼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기사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밖에 여성 기자와 여성기자가들은 기명 칼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격려하고 어려운점을 지적하여 여성후보들을 간접 지원하였다. 또한 여기자들은 여성후보에 대한 기사에서 여성후보들 만 묶어서 보도했으며 이러한 기사에서는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사 '이런 여성후보 여기 있소'(한계레 3/9), '향토 여성후보들 바쁘다'(대구 3/23),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에게' (무등 6/9), '집안 살림하듯 꼼꼼한 일처리 자신' (전북 6/20), '정치세력화 능동적 역할을' (무등 5/26) 기사 등에서 여성후보들을 바람직한 후보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성기자들은 여성후보와 여성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성정치참여와 여성후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이에 비해 남성기자들은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함께 다루어진 기사, 여성후보 중에서 황산성, 전재희, 김옥선등의 단체장 후보의 출마 기사나 인터뷰, 그리고 이색 여성당선자의 인터뷰 기사, 비례대표제, 대부분의 여성배우자에 관한 기사를 썼다. 남성기자들이 여성후보들을 남성후보들과 함께 다룰 때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격려하기 보다는 사실 보도에 그쳤으며 황산성과 김옥선에 대해서도 리를 쓰리 또는 군소후보의 말을 들어 본다는 식으로 위상을 격하시킨채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견지했는데 이는 여성기자들이 여성후보를 격려했던 것과 대비된다 하겠다. 다만 전재희후보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썼다고 하겠다.

여성정치 참여에 관한 기사 중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가장 부정적인 기사였는데 이들도 전부 남성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시끄러운 여성계 (매일 6/2), 지역여성계 갈등심화 분열조짐 (대구 5/30), 여성경쟁 치열 (동아 4/6) 등의 기사) 남성들간의 경쟁도 더 치열했음에도 유독 여성들의 경쟁 만이 강조된 것은 남성 기자들의 여성 비하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여성기자들의 태도와는 대비된다 하겠다. 여성배우자에 관한 기사도 전북일보의 지사 후보 부인에 관한 두기사 외에는 전부 남자 기자들에 의해 쓰여졌는데, 여성배우자는 남성 후보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취재는 남성기자의 몫이었는데 여성배우자들이 사적영역에서의 역할에 관심을 나타내었고 이들을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묘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다만 몇몇 남성 칼럼니스트들은 기명 칼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격려하고 여성유권자들의 자각을 독려했다 (최일남 (전북 4/1), 유근일 (조선 5/4), 이월수 (경남 5/31), 남부희 (경남 5/18)).

6) 기사종류별

표14 기사종류별 분류(%)

	보도	특집기획	해설	칼럼 및 시론	인터뷰	기타	총계
동아	17	8	5	1	0	0	31
조선	15	6	4	4	4	0	33
중앙	14	4	5	3	2	6	34
한국	13	2	3	2	0	0	20
한겨레	12	8	9	1	4	1	35
소계	71	28	26	11	10	1	153
평균	14.2 (46.4)	5.6 (18.3)	5.2 (17.0)	2.2 (7.2)	2.0 (6.5)	0.2 (0.7)	30.6 (100.0)
강원	18	5	1	2	2	1	29
경기	12	3	2	0	1	0	18
경인	9	6	3	0	1	0	19
충청	14	4	1	0	2	0	21
대전	6	2	1	0	0	0	9
매일	19	4	2	1	2	0	28
대구	14	8	7	0	14	0	43
전북	14	4	0	2	3	0	23
광주	10	2	1	0	1	0	14
무등	22	12	0	3	1	0	38
국제	10	5	1	1	1	0	18
경남	9	12	3	3	0	0	27
소계	157	67	22	12	28	1	287
평균	13.1 (54.7)	5.9 (23.3)	1.8 (7.7)	1.0 (4.2)	2.3 (9.8)	0.1 (0.3)	23.9 (100.0)
총계	228	95	46	23	38	2	440
평균	13.4 (51.2)	5.6 (21.6)	2.7 (10.1)	1.4 (5.2)	2.2 (8.6)	0.1 (0.5)	25.9 (100.0)

보도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거현장에 대한 특집이나 기획기사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칼럼이나 시론, 그리고 인터뷰등이었다. 기타는 독자투고, 논설, 좌담회등이 있다. 칼럼은 주로 여성 정치에 대한 여성유권자의 각성에 관한 것이며 인터뷰기사는 여성단체장(중앙지 3회, 지방지 6회), 후보의 배우자, 정무제2장관 등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7. 결론 및 제언

1995년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계는 여성의 지방 정치참여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대중매체 중에서도 신문은 가장 신뢰받는 매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신문의 관심은 여성관련 지방선거 기사수는 전체 지방선거 관련기사나 여성관련기사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보도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매스 미디어는 보수적인 사회체제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비호의적(최선열, 1994:65)이라는 점에서 신문이 여성의 지방 정치 참여에 관한 보도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설명할 수 있겠다.

평균적으로 중앙지가 지방지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6월에 전국의 모든 신문이 가장 많이 실었으며, 중앙지는 5월에, 지방지가 3월에 각각 기사수에서 두번째로 많이 게재하였는데, 지방지 경우 보도 기사수에 있어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일부 지방지와 일부 중앙지의 여성 지방정치 참여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인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보도 기사 수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는 적었어도, 독자들은 조사 기간 동안 한 신문을 구독할 경우 평균 일주일 혹은 두주일에 1-2회의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 대체로 여성후보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또한 여성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도하였고, 여성 정치참여의 증대에 있어 문제점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지하며 또 여성유권자들의 중요성을 논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등 신문이 여성들의 지방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했었다. 이는 지방지와 중앙지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계가 바람직한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후보의 보도에서 두가지점에서 앞으로 여성 후보 보도에 대한 경향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여성후보에 관한 기사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기사수를 실었으며 여성 후보 소개와 여성후보수의 적음을 지적하여 여성 입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기초단체와 의회 여성후보는 이미 1백명이 넘어 회소성에 의한 보도 가치는 상실하여 여성단체 추천 후보나 이색 후보 외에는 개개인이 신문에 등장하지는 못하여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지방지는 남성 후보와 더불어 함께 소개되는 지면 외에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은 이색 후보 또는 소수의 후보로 회소성 때문에 뉴스 가치를 인정받아 상대 남성 후보와 서울지역 여성후보들 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지면을 할애받아 소개되어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에서도 지방자치선거에 여성이 입후보하는 것은 점차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면 회소성이 상실하여 지방의 개개 여성후보자들도 신문 보도의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체장에 입후보한 전제희와 황산성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매스컴이 보도에서 같은 여성후보라도 전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여성후보를 취급하는데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게 그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이며 황산성후보는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매스컴에 의해 규정되므로써 유권자의 주목을 획득하여 득표율을 높이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에 비해 전제희씨는 공천에서 부터 신문은 계속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선거전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선거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후보의 회소성이 줄어들면 여성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보도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부터 신문이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로 제기되며 당선 가능성 여부가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나 기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염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언론과의 관계를 트고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우정의원이 정치가로서 성공하는데는 언론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1993:125) 밝힌 바 있다.

2.

여성단체 활동이 두번째로 많았던 것은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6월 선거의 달에 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5월에도 선거가 임박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라 선거에 관한 기사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3월이 4월 보다 기사가 많은 것은 이 시기에 비례대표제의 채택등의 뉴스거리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여성단체 행사에 힘입은 바 크다. 여기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대중 매체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행사를 개최하여 기사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다. 다시 말해 여성단체가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자들

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사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쟁점을 행사와 연계하는 방법 (Patterson, 1980:174)으로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는 여성후보와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성운동이 뉴스매체의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그 운동에 대해 신문이 지지한다는 뜻도 된다. 신문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일부 지방지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 극히 소극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지방의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하겠다.

3.

후보자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보도에서 이들은 가내에 머물면서 소위 여성의 역할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되었다. 여성배우자들이 남편에 대해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것보다 공적 영역에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 여성배우자의 여성상과는 대비되고 있다. 여성배우자들도 자신들이 전통적인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여성계는 이러한 여성배우자에 대한 묘사가 결코 남성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배우자는 선거운동에서 남편의 선거에 남편에 대한 전통적 내조의 연장으로 대리인으로 또 보조자로서 맹렬한 활동을 한 것으로 투영되어 선거에 입후보한 남성 후보와 그 배우자는 전통적 역할 분담에 충실한 전통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투영되었으며 이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암시한다. 이에 비해 남성배우자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않거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후보자의 배우자의 관계는 전통적인 부부관계와 역할 분담에 충실한 틀 속에 있는 후보를 비판하고, 여성계는 평등한 부부 관계를 맺는 후보를 이상적인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운동원이 성적 대상으로 동원되어 득표활동에 나서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이용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

4.

기자들의 성별에 따라 여성의 지방정치참여에 대해 다르게 보도한 것도 여성계의 앞으로의 활동에 시사점을 준다. 즉 남성기자들이 여성후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또 여성배우자에 대해 전통적 여성으로 묘사하고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성간의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비해, 여성기자들이 여성의 지방정치참여와 여성후보에 대해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여성기자들이 남자기자들에 비해 여성의 정치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는 여성기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할당제를 비롯한 승진과 부서 배치에서 불리하

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촉구해야하며, 또한 여성단체는 여성기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상호간 긴밀히 협력해야할 것이다. 여성지방정치 참여 기사가 대부분이 정치면에 실렸는데 이는 일반 독자들의 여성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여성란 또한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여성후보에 대해 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자들이 정치부기자가 되어 여성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보다 많이 정치면에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5.

여성유권자들은 아직도 신문에서 판단이 미숙한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일반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반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독자가 무엇에 관심있는가에 민감한 대중매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관련 정치기사를 보도한다는 점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중요하дах겠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애 (1995), '6. 27선거와 여성운동', 한국여성민우회
- 김기태 (1993), '여성과 언론수용자운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개토론회 <여성과 언론> 발표논문
- 김미숙 (1994), 'TV광고에 나타난 여성성의 변화와 지속',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유경 (1983), 한국신문 여성관에 관한 연구,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명자 (1984), '텔레비전 드라마에 표출된 한국여성상에 관한 분석', 신문학보 제17호 한국신문학회.
- 문영숙 (1983), '광고물에 나타난 남녀 이미지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기 (1995), '갈등 부각으로 선거 무관심 부채질, 1991년 지방선거보도가 준 교훈', 신문과 방송, 6월호 pp. 22-26.
- 정세화 외 3인 (1989), 사회변동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여성관연구 -1978년과 1988년의 인쇄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송유재 (1984), 텔레비전 드라마에 방영된 한국여성의 역할 및 이미지연구, 여성학논집, 제1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 (1988), '한국신문의 여성관 분석연구', 논총 제5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1990) '여성과 매스미디어'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창설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 오숙희 (1990), '신문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왜곡 보도', 여기자 창간호, 한국여기자 클럽
- 오택섭 (1974), '국민화합을 위한 TV의 역할', 방송매체의 언어사용과 사회적 역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경자 (1994), 여성과 미디어 소비자 운동, 서울:세계여기자포럼, pp. 15-26.
- (1986), 'TV 여성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4권 제1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 123-153.
- 이경자 (1986), '건강한 가정설계를 위한 대중매체 연구', 여성연구 제4권 제1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 45-82.
- 이범수 (1993),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신문', 강상현, 제백 위음,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한나래, pp. 57-84.
- 이우경 (1993), '여성의원과의 대답', 한국여성유권자연맹편, 제1회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서울:한국여성유권자연맹, pp. 123-125.
- 이효성 (1990), '대중언론의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한울, pp. 145-166.
- 이창원 (1990), '매스미디어 효과와 기능',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한울, pp. 230-247.
- 조성숙 (1989), 'Feminist Transformation through Mass-oriented Journalism Korea: the case of the Hankyoreh Newspaper', 미국여성학회 발표논문.
- (1994), '언론매체의 여성관과 언론소비자로서의 여성', 여성정치시대와 언론, 서울:한국여성유권자연맹, pp. 47-58.
- 조형, 최선열, 장필화, 박혜란 (1991), '주부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여성상 연구 가족, 일, 성(性)의 영역의 중심으로', 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주년, 리사넷 반 (1994), '뉴스미디어 조직에서의 여성의 위상과 역할', 김명혜, 김훈순, 유선영 공역, 성, 미디어, 문화, 서울:나남, pp. 335-356.
- 최상진 (1995), '여성대상 프로그램에 나타난 주부의 역할에 대한 분석 -KBS1 TV, 아침 마당을 중심으로-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선열 (1989),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정치적 소외', 여성학논집 제6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 99-124.
- (1994), '여성의 정치참여와 매스 미디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편, 여성정치시대와 언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언론연구원 (1990), '90년대 언론과 독자 제4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서울: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5),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여성상과 드라마와 코미디, 광고의 등장 인물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 '신문 속의 여성소외', 여성정치시대와 언론, 서울:한국여성유권자연맹.
- (1993), 여성과 언론, 서울:한국여성유권자연맹.
- (1993), 5개 일간지 여성관련 기사분석, 서울:한국여성유권자연맹.

- Boutillier, K. (1978), *The Making of Political Women*, Chicago: Nelson-Hall, PP. 49-81.
- Epstein, Laurily Keir (ed.) (1978), *Women and News*, New York: Hastings House Publishers.
- Graber, Doris A. (1978), 'Agenda-Setting: Are There Women's Perspectives?' Epstein, Laurily Keir (ed.), *Women and News*, New York: Hastings House Publishers, pp. 15-37.
- (1984),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second ed.,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Hawks, Joanne V. & Carolyn Ellis Staton (1993), 'On the Eve of Transition: Women in Southern Legislatures, 1946-1968,' Lois Lovelace Duke (ed.), *Women in Politics-outsiders or insiders?*, New Jersey: Prentice Hall, pp. 97-106.
- Johnston, A. (1990), 'Trends in Political Communication: A Selective Review of Research in the 1980s,' Swason, D. L. & Nimmo (eds.), *New Directions in Political Communication*, Newbury Park: Sage, pp. 329-362.
- Kahn, K. F. & E. N. Goldenberg (1991a), 'Women Candidates in the New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U. S. Senate Campaign Coverage, Public Opinion Quarterly, 55, pp. 180-190.
- (1991b), 'The Media: Obstacle or Ally of Feminists?', *Annals of American Academy for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15, May.
- Kernam, Mindi (1994), '언론에서의 남녀 성문제', *세계여기자포럼 논문집*, pp. 28-33.
- Patterson, Thomas E.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New York: Praeg.
- Russonello, John M & Frank Wolf (1979), 'Newspaper Coverage of the 1976 and 1968 Presidential Campaigns,' *Journalism Quarterly*, Summer 1979.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도
 서관여기여성이기록하고여
 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하
 고여성기록하고여성기록하
 성평등도서관성이기
 록하고여성기록하는여성
 을기록하고여기기억하는
 바로이곳성평등도서관여기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발행일 : 1996년 2월

본 연맹은 비영리 자원봉사자들의 단체로서 모든 정당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사단
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Korean League of Women Voters

138-0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1-3(2층)

전화 : 423-5355(代) 팩스 : 423-5356